

생각은 실상이다

작성일 : 2012. 10. 27.(토) 새벽 2시경

작성자 : 김슬기

(잠언 말씀을 보던 중에 번뜩 더 와 닿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상상, 생각을 해도 혼계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과 상상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생각과 상상,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함으로 일을 한다고 했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각은 실상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인본의 말씀임이 깊이 깨달아 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생각은 보물이다.

생각으로 좌우되고 생각으로 행한다.

생각으로 혼체가 좌우되고 육체가 좌우된다.

낮에는 생각이 육신을 쓰고 행하고,

네가 잠을 잘 때에는 혼체가 꿈에서 행한다.

또한, 낮에도 네가 어떤 생각을 하면

네 육체가 행하지 않더라도 혼체가 행한다.

'행함'을 잡고 있는 것이 생각이기

생각이 그리 중하다고 하는 것이다.

신약 때 나사렛 예수를 통해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죄에 속한다고 하였다.

'혼체'가 행한다는

깊은 차원에서의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명 길이 좌우됨을 알린 것이다.

기도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가기 시작한다.

네 사랑의 마음,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나의 분체에 대한 생각, 섭리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 등

기도를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이 된다.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그 말을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라는 행위가 된 것이고,

그 기도 속에 담긴 네 생각이 실상이 되어

사랑의 기도를 하면

사랑의 일을,

회개의 기도를 하면

용서를 비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은 실상이라는 이 말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

이것이 영계의 비밀임을 모른다.

내가 너희의 신흔골수를 꿰뚫어 본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 생각을 통해 혼계,

혹은 육계를 통해 모든 것이 행실로 옮겨지니

나 성자는 너희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그 실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서 말을 하는 것도

너희 생각과 마음의 실상이

혼계와 영계를 통해 드러나니

선생이 혼계와 영계를

두루 다니면서 본 실상을 통해

알고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이 능력이 있다.

(주님, 영계, 혼계, 육계가 참 오묘하게 얹혀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얹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희의 말, 행동, 생각, 마음 등

육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혼계에 작용되고,

영계에 작용되어 좌우하지 않느냐.

육계도 실상은 영계의 축소판이 아니더냐.

그러니 육계의 삶이 영계를 좌우한다 한 것이다.

생각은 실상이니

너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행하고,

몸으로 차마 못 하겠거나,

제한이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은

혼체가 행한다.

그러니 네 생각으로

선생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 기도이다.
기도하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너희가 실감나게 만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또한 혼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행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

너희 생각 하나하나가 중하고 귀하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지.
너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생각으로 계속 행하고 떠올리면,
그것을 몸으로 행하기는 더 쉽다.

너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으로 하면 좀 더 하기가 쉽지?
그 일을 생각으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
직접 행했을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생각의 비밀이다.
좋은 일들도,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너희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생각으로 계속 행해 보아라.
생각이 육계의 실상이 되어 혼계 실상이 되듯,
생각이 혼계 실상이 되어 육계 실상이 된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생각 실상체로 나타난다고 보면 쉽다.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느냐.
생각의 비밀이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것 또한
깊은 집중력이 필요하니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각으로 내 분체인 선생도 계속 만나고,
나 성자도 계속 만나자.
생각으로 생명도 만나고,
의로운 일을 하자.
생각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생각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인 기도의 문을 넓혀
혼계를 뛰어넘어 영계에서 행하고 만나자.
정말 깊은 인봉의 말이다.
이 말을 꼭 붙잡아
네게 복으로 돌려라.
사랑하여 가르쳐 주었다. 안녕.